

長期패널資料를 活用한 韓國의 失業期間 測定과 새로운 패널資料의 構築⁽¹⁾

南 在 亮·柳 根 寬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한 기존의 월별 패널자료를 동일한 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장기패널의 형태로 재구축하여 실업기간 측정에 활용하는 한편, 기존의 패널자료에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새로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장기패널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Markov 안정성 가정을 최대한 완화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에 사용한 결과, Markov 안정성 가정 하에서 구한 실업기간은 실제의 실업기간을 왜곡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경제활동뿐 아니라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된 새로운 패널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결합을 시도하여 성공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새로운 패널자료는 많은 새로운 분석들을 가능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패널자료는 추가적인 패널조사 비용 없이 구축되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자료이며 통계청의 조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 도 계속 얻을 수 있는 자료라는 큰 장점을 가진다.

1. 序 論

우리나라에서 패널자료는 매우 제한된 정도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에 따라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패널조사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남재량(1997)이 구축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한 패널자료는 적어도 현존하는 자료로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가 1981년부터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패널조사를 시작한 바 있으며 다른 기관들에서도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패널조사를 시도하고 있어서 패널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패널자료 가운데 남재량(1997)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한 패널⁽²⁾에 주목하고 있다. 이 패널자료는 여타의 패널자료와 달리 패널조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통계청의 조사가 계속되는 한 동일한 형태의 패널

(1) 제원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린다.

(2) 이하에서 이를 '經濟活動패널'이라 부르기로 한다.

자료를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조사하여 공식 발표하는 자료에 입각하여 구축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는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대략 20년에 걸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패널의 장점으로 인해 남재량(1997)의 연구 이후 남재량·이창용(1998), 남재량·류근관(1999), 김대일·남재량·류근관(2000), 남재량·김태기(2000)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부터 이제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동태적 모습들을 비롯하여 여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제활동패널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재량(1997)이 원래 구축한 月別패널資料(month-to-month matched panel data)의 형태로 자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료를 이웃한 두 달에 대해서만 식별하여 병합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패널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동일한 경제주체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개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병합하는 장기패널의 형태로 경제활동패널을 재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써 실업기간을 측정하고자 한다.

경제활동패널이 많은 장점을 가진 유용한 패널자료이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제약적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큰 제약점은 경제활동패널이 소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경제활동패널을 가능케 하는 원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7년까지 소득을 제한된 형태의 범주형 변수로 조사하여 왔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998년부터 소득변수를 조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득자료가 없는 경제활동패널을 사용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 역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경제활동패널을 장기패널로 확대 구축하여 실업기간의 측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한계는 드러난다. 개별 경제주체의 실업기간은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소득수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제활동패널은 이러한 가설을 검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활동패널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동패널에 소득에 대한 조사 자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경제활동패널을 확장하는 새로운 패널자료의 구축을 시도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경제활동패널을

동일한 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병합하는 장기패널로 확대하여 재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업기간을 측정한다. 둘째, 기존의 경제활동패널에 소득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경제활동패널이 보다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확장된 새로운 패널자료를 구축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진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고 있다. (1) 기존에 추정된 실업기간들은 실제의 실업기간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실업기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核心失業(core unemployment)이 실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에 측정된 실업기간은 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을 비롯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결합될 수 있고 결합된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이 새로운 패널자료는 표본의 이탈이 크지 않아 각종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실업기간 측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활동패널을 장기패널로 재구축한 다음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에 입각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한다. 또한 Markov 안정성 가정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업기간 측정에 있어 장기패널자료의 유용성을 보인다. 제3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합 및 결합된 자료의 패널화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 있다.

2. 經濟活動人口調查 原資料를 使用한 長期패널資料의 構築 및 失業期間의 測定

2.1. 失業期間 測定上の 問題點

실업기간이란 한 노동자가 실업에 진입한 때부터 실업을 벗어나기까지 실업상태에 머문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된 실업기간을 실제로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실업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실업기간이 구간의 형태로 관측되는 區間切斷(interval censoring)의 문제를 가지며 또 실업이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로 관측되는 右側切斷(right censoring)의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구간절단과 우측절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Markov 이행확률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두 시점에 걸쳐 구축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업탈출 확률이 실업

$(t-1) \backslash t$	E_t	U_t	N_t
E_{t-1}	$EE(ee)$	$EU(eu)$	$EN(en)$
U_{t-1}	$UE(ue)$	$UU(uu)$	$UN(un)$
N_{t-1}	$NE(ne)$	$NU(nu)$	$NN(nn)$

〈그림 1〉 Markov 移行確率 行列

기간 내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면 기대 실업기간은 실업탈출률의 역수로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태간 이행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Markov 가정 하에 〈그림 1〉은 그 이행확률 행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첫 번째 열(column)과 첫 번째 행은 각각 前期($t-1$ 시점)와 今期(t 시점)의 노동력 상태를 나타낸다. 취업상태를 E , 실업상태를 U 로 나타내고 비경제활동상태는 N 으로 표시할 때, 일정기간,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발생한 노동자들의 상태 변화는 그림과 같은 9개 원소를 갖는 Markov 이행확률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행렬의 각 원소들은 대문자와 소문자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대문자로 표기된 원소는 ($t-1$)시점의 특정 노동력 상태에서 t 시점의 특정 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소문자는 이들을 각각 원래상태($t-1$ 시점)의 사람 수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소문자로 나타낸 원소들은 ($t-1$)시점에서 t 시점의 상태로 이행할 확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EN 은 ($t-1$)시점에 취업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t 시점에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한 사람들의 수이고 en 은 $(EN)/E_{t-1}$ 으로 정의된 해당 이행확률이다.

그림에서 ($t-1$)시점에서 실업된 사람들 가운데 다음 달(月)인 t 시점에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 즉 실업탈출확률은 $(ue + un)$ 이며 $(1 - uu)$ 로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상태로 진입한 후 실업에서 벗어날 때까지 매 달에 걸친 실업탈출확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기대실업기간은 다음의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begin{aligned}
 \text{기대실업기간(EDUM)} &= \frac{1}{ue + un} \\
 (2.1) \qquad \qquad \qquad &= \frac{1}{1 - uu} \quad (3)
 \end{aligned}$$

(3)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결과이다.

$$\begin{aligned}
 \text{기대실업기간} &= 1 \cdot (1 - uu) + 2 \cdot uu \cdot (1 - uu) + 3 \cdot (uu)^2 \cdot (1 - uu) + \dots \\
 &= 1/(1 - uu).
 \end{aligned}$$

그러나 실업기간을 식 (2.1)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업이 경과한 기간과 무관하게 실업탈출확률 또는 마찬가지로 의미로 실업에 계속 머물 확률 uu 가 항상 일정하다는 Markov 安定性 假定(Markov stationary assumption)이 필요하다. 이 가정은 실업에 접어 든 지 한 달이 지났건 두 달이 지났건 1년이 지났건 간에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으로 매우 강한 가정이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강한 가정에 입각하여 실업기간을 추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식 (2.1)과 같이 강한 가정에 입각하여 추정된 실업기간은 실제의 실업기간을 왜곡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 長期 패널資料의 構築

실업기간 측정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을 완화한 채 실업기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패널조사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패널의 형태로 구축되지 못하고 특정시점에서 개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패널자료 구축이 가능성이 남재량(1997)에 의해 밝혀지면서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한 연구들은 주로 이웃한 두 시점(月)을 연결하는 월별패널의 형태로만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지하므로 동일한 개인을 길게는 60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즉 장기패널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본고는 59개월에 걸쳐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데 구축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추출된 표본이 마지막 59개월까지 계속해서 관찰되고 식별된 경우가 최초 표본의 30%에 이른다.

본 연구는 이처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동일한 개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연결하는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실업기간에 관한 정보량을 늘리고자 한다. 이렇게 구축한 장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각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시간에 걸쳐 추적하면 실업을 경험한 개인들의 실업 시작시점과 실업 종료시점을 알아낼 수 있고 이로부터 실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패널조사는 거듭된 조사이다보니 標本 離脫(sample attrition)의 문제가 있다. 한 실업자가 그의 실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대상에서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업의 종료시점까지 관측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

용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므로 기본적으로 5년마다 표본의 교체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패널이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최초 추출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5년에 가까워질수록, 즉 표본개편이 임박할수록 완결되지 않은 실업자료를 보다 많이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웃한 두 달에 걸쳐서만 연결한 자료에 비해, 최대 59개월에 걸쳐서 추적하여 연결할 경우 미완결실업의 비율이 훨씬 작아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구축하는 장기패널자료는 실업기간을 계산하는데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2.3. 模型

이제 Markov 안정성 가정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실업기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⁴⁾ 먼저 최초시점 ($t=0$)에서 실업상태로 새로이 진입한 사람들의 수를 U_0 라 하고 이들 중 j 개월 뒤 ($t=j$)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를 U_j 라 하자.⁽⁵⁾ 그리고 U_j 와 U_{j-1} 의 비율을 uu_j 라 정의하자. 즉,

$$(2.2.) \quad uu_j = \frac{U_j}{U_{j-1}}.$$

식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u_j 는 $(j-1)$ 개월 동안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 달에도 여전히 실업에 머물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한 uu_j 를 사용하면 Markov 안정성 가정이 완화된 상태에서 기대실업기간을 구할 수 있다. 期待失業期間(expected duration of unemployment)을 EDU 라 하면,

$$(2.3) \quad \begin{aligned} EDU &= 1 \cdot (1 - uu_1) + 2 \cdot uu_1 \cdot (1 - uu_2) + 3 \cdot uu_1 \cdot uu_2 \cdot (1 - uu_3) \\ &+ \dots \\ &+ (k-1) \cdot uu_1 \cdot uu_2 \cdot \dots \cdot uu_{k-2} \cdot (1 - uu_{k-1}) \\ &+ k \cdot uu_1 \cdot uu_2 \cdot \dots \cdot uu_{k-1} \cdot (1 - uu_k) \\ &+ (k+1) \cdot uu_1 \cdot uu_2 \cdot \dots \cdot uu_k \cdot (1 - uu_{k+1}) \\ &+ \dots \end{aligned}$$

(4) 이 모형을 사용하면 물론 미완결 실업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다.
 (5) 즉 U_j 는 $t=0$ 에서 새로이 실업된 사람들 가운데 실업기간이 j 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들의 수이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실업기간을 D 라 하면 U_j 는 U_0 의 사람 가운데 $D \geq j$ 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의 수이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2.3)에서 $(1 - uu_j)$ 는, $(j - 1)$ 개월까지는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j 번째 개월을 넘어서면서 취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다.⁽⁶⁾ 따라서 식 (2.3)의 우변 첫 번째 항은 1개월⁽⁷⁾ 동안 실업에 머물다가 다음 달에는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나타내고, $(k - 1)$ 번째 항은 $(k - 1)$ 개월까지 실업상태에 머물다 그 다음 달에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제 식 (2.3)의 공식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우리가 모든 j 에 대해 uu_j 를 알 수 있다면 식 (2.3)을 사용하여 Markov 안정성 가정 없이 기대실업기간 EDU 를 측정할 수 있다. 실업기간을 이렇게 추정하면 이는 가정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추정량이 된다.

둘째, 月別로만 併合된 패널資料(month-to-month matched panel data)는 실업자를 단 한 번만 추적한다. 이 경우 EDU 를 구하기 위해서 통상 $uu_1 = uu_2 = \dots \equiv uu$ 를 가정한다. 이렇게 구한 EDU 가 바로 Markov 안정성 가정 하에서 기대실업기간을 구하는 것으로서 식 (2.1)과 일치하며 이제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셋째, 우리가 이 논문에서처럼 장기간에 걸쳐 개인을 추적하여 장기패널을 구축하면 관측을 통해 측정이 가능한 uu_j 들에 대해서는 Markov 안정성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관측이 불가능한 uu_j 들에 대해서만 이 제약적인 가정을 도입하면 된다. 즉 자료가 풍부해짐에 따라 제약적인 가정에 덜 의존해도 되는 셈이다. 예컨대 k 까지의 uu_j 들, 즉 uu_1, uu_2, \dots, uu_k 를 알 수 있다고 하자. 이 때 EDU 를 구하기 위해 $j > k$ 인 나머지 uu_j 들에 대해서만 $uu_{k+1} = uu_{k+2} = \dots = uu_k$ 의 가정을 하자. 이 가정 하에 구한 EDU 를 EDU_k 라 하면 EDU_k 가 다음의 식 (2.4)와 같게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egin{aligned}
 EDU_k &= 1 \cdot (1 - uu_1) + 2 \cdot uu_1 \cdot (1 - uu_2) + 3 \cdot uu_1 \cdot uu_2 \cdot (1 - uu_3) \\
 &+ \dots \\
 (2.4) \quad &+ (k - 1) \cdot uu_1 \cdot uu_2 \cdot \dots \cdot uu_{k-2} \cdot (1 - uu_{k-1}) \\
 &+ uu_1 \cdot uu_2 \cdot \dots \cdot uu_{k-1} \cdot \left\{ k + \frac{uu_k}{(1 - uu_k)} \right\}.
 \end{aligned}$$

(6) 즉, $(j - 1)$ 개월까지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j 번째 개월을 지나면서 취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확률을 각각 ue_j, un_j 라 하면, $uu_j + ue_j + un_j = 1$ 이므로 $(1 - uu_j) = ue_j + un_j$ 가 성립한다.

(7)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월별조사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구축한 장기패널자료 역시 期間(period)의 단위로 月(month)을 사용하게 된다.

식 (2.4)는 $uu_{k+1} = uu_{k+2} = \dots = uu_k$ 라는 가정 하에 얻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k=1$ 이라면 이 가정은 $uu_1 = uu_2 = \dots \equiv uu$ 로 표현되는데, 이 때 실제로 uu 는 uu_1, uu_2, \dots 등의 추정치를 가중 평균하여 얻게 된다. 이는 월별로만 병합된 패널자료로부터 추정하는 uu 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업된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 (2.4)를 얻기 위한 가정도 $uu_{k+1}, uu_{k+2}, \dots$ 등을 여기처럼 하나의 값인 uu_k 와 같다고 두는 것보다는 몇 개를 평균한 것과 같다고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uu_k 가 아주 불안정할 때 $j > k$ 인 모든 나머지 uu_j 들을 uu_k 와 같게 둔다면 측정되는 실업기간은 불안정한 uu_k 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나 몇 개의 평균과 같다고 두면 그 영향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j \leq k$ 인 uu_j 가운데 몇 개의 uu_j 들을 평균할 것인가? $j \leq k$ 인 모든 uu_j 들을 평균할 수도 있겠으나 uu_j 가 j 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k 에 근접한 두 세 개를 평균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기대실업기간을 구할 때 식 (2.3)을 이용하는 것과 식 (2.4)를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우선 가정을 덜 사용해도 된다는 면에서는 식 (2.3)을 이용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Markov 안정성 가정에 의존하는 식 (2.4)에 비해서 유리하다. 반면 식 (2.3)은 실업지속확률 uu_j 를 모든 j 에 걸쳐 추정해내야 한다는 면에서 $j \leq k$ 에 대해서만 그 추정을 요구하는 식 (2.4)에 비해서 자료에 부담을 더 많이 주는 추정방법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실업기간 측정에 있어 Markov 안정성 가정이 완화되는 정도는 k 의 크기, 즉 패널자료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있는가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추출된 표본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관찰한 다음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하므로 표본추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은 개인들의 실업에 대한 관찰이 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표본 교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실업에 대한 불완전 관찰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표본 교체 시기가 임박할수록 Markov 안정성 가정의 엄격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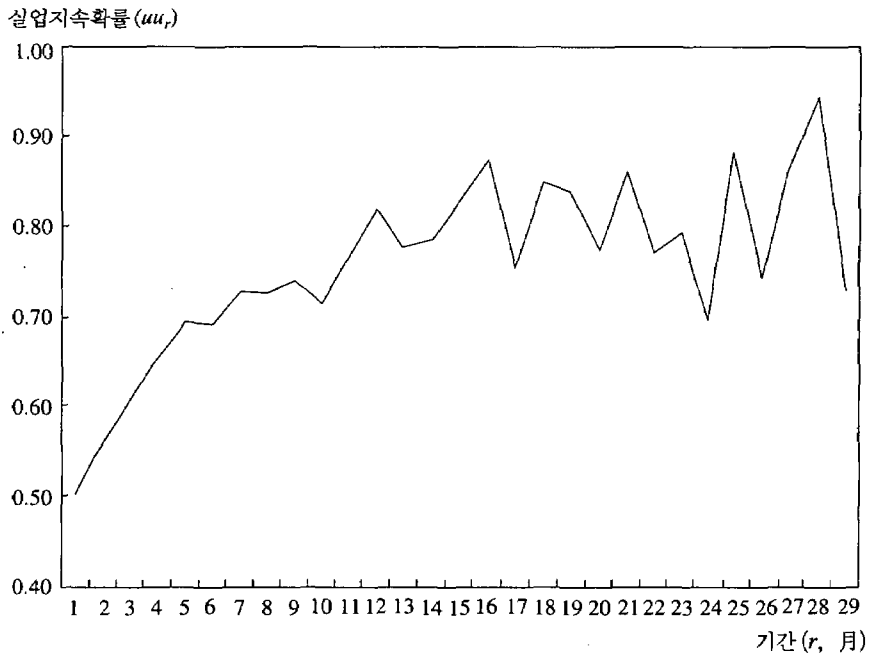
2.4. Markov 安定性 假定에 對한 評價

실업기간을 측정하기에 앞서 Markov 안정성 가정이 과연 현실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가정인지 여부를 평가해보자. 본고에서 구축한 장기패널자료를 사용하면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다. 즉, $uu_j (j = 1, 2, \dots, k)$ 가 취하는 값들을 비교하여 이들간에 별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이들이 매우 상이한 값을 갖는지를 검토해보면 이 가정의 엄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uu 와 uu_j 의 차이점을 상기하면, uu 는 어느 한 실업자가 실업에 머문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달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머물 확률인 반면, uu_j 는 $(j-1)$ 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머문 실업자가 다음 달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에 머물 조건부 확률이다. 즉, uu

는 uu_j 를 대략 가중 평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는 장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실업지속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가로 축은 패널이 구축된 기간, 즉 개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 기간(r)이며 세로축은 각 r 에 대한 실업지속확률(uu_r)이다. 구체적으로 그림은 1986, 1989, 1994, 1995년의 매월에 새로 실업된 사람들을 찾아 U_r 들을 구하여 동일한 r 끼리 모두 더한 다음 이로부터 계산한 uu_r 들을 그린 것이다. 특별히 이들 네 연도의 각 월에 새로 실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의 실업기간이 완전하게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도를 함께 고려한 것은 경기변동과 계절적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림을 29개월까지만 그린 것은 그 이상 실업에 머무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 이후의 실업지속확률이 1이거나 아니면 0에 가까운 극단적인 값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지속확률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분석대상 가운데 가장 오래 동안 실업에 머문 사람은 1989년 2월에 새로 실업되어 1992년 2월까지 36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머물다가 37개월째에 실업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이



資料: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그림 2〉 期間에 따른 失業持續確率의 變化

다. 따라서 <그림 2>의 실업지속확률을 연장하여 그리면 그림은 36개월까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37개월에 이르러 0의 값을 가지면서 끝나게 된다.

<그림 2>를 보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지속확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失業脫出率⁽⁸⁾이 실업기간의 감소함수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처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지속확률이 실업의 경과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Markov 안정성 가정이 현실을 묘사하는 데에 부적절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가정에 입각하여 구한 실업기간은 실제의 실업기간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Markov 안정성 가정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식 (2.3)을 이용하여 기대실업기간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의 다른 두 추정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2.5. 韓國의 失業期間 推定

Markov 안정성 가정이 현실을 묘사하는 데에 적합치 않음을 보았으므로 먼저 이 가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식 (2.3)에 입각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하고 이를 다른 형태의 실업기간들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表 1>은 완전 관찰이 이루어진 1986년, 1989년, 1994년, 1995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식 (2.3)에 입각하여 추정한 실업기간인 EDU를 다른 실업기간들과 비교하고 있다. 표에서 구직기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이다. EDUM은 이웃한 두 시점에 대

<表 1> 失業期間

단위: 月

구 분		평균	1986	1989	1994	1995
전체	EDU	2.40	2.00	2.07	2.83	2.70
	EDUM	3.00	3.13	2.49	3.30	3.08
	구직기간	3.54	3.97	2.92	3.79	3.48
남성	EDU	2.51	2.03	2.21	2.98	2.85
	EDUM	3.22	3.30	2.74	3.55	3.30
	구직기간	3.73	4.12	3.10	4.04	3.64
여성	EDU	2.20	1.92	1.85	2.58	2.44
	EDUM	2.59	2.66	2.07	2.87	2.77
	구직기간	3.09	3.43	2.48	3.27	3.16

資料: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8) 문헌에서는 이를 危險率(hazard rate)이라고 부른다.

해서만 구축한 패널로부터 구한 실업기간으로서 식 (2.1)을 사용하여 구한 Markov 안정성 가정 하의 실업기간이다. EDUM은 구직기간과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업기간의 척도이다.

이제 <表 1>에 나타난 실업기간의 여러 측정치를 비교해보자. 표에서 보듯이 세 가지 측정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업기간 EDU는 평균 2.40개월로 가장 짧으며 EDUM은 이보다 0.60개월 더 긴 3.00개월이다. 구직기간은 EDU보다 무려 1.14개월이 더 긴 3.54개월이다. 이처럼 EDU로 측정한 실업기간이 가장 짧고 EDUM이 그 다음으로 길고 구직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은, 性(sex)과 연도를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에서 실업기간의 척도로 흔히 사용하는 구직기간이나 EDUM이 실업기간의 척도로 적절치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EDUM이 다른 추정치인 EDU와 다르며 더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Markov 안정성 가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Markov 안정성 가정이 실업기간을 과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대평가의 정도는 매우 클 수 있다. 표에서 1986년 남성의 실업기간을 보면 이러한 과대평가의 정도는 무려 1.27개월이나 된다. EDUM이 EDU로 측정한 실업기간을 62.6%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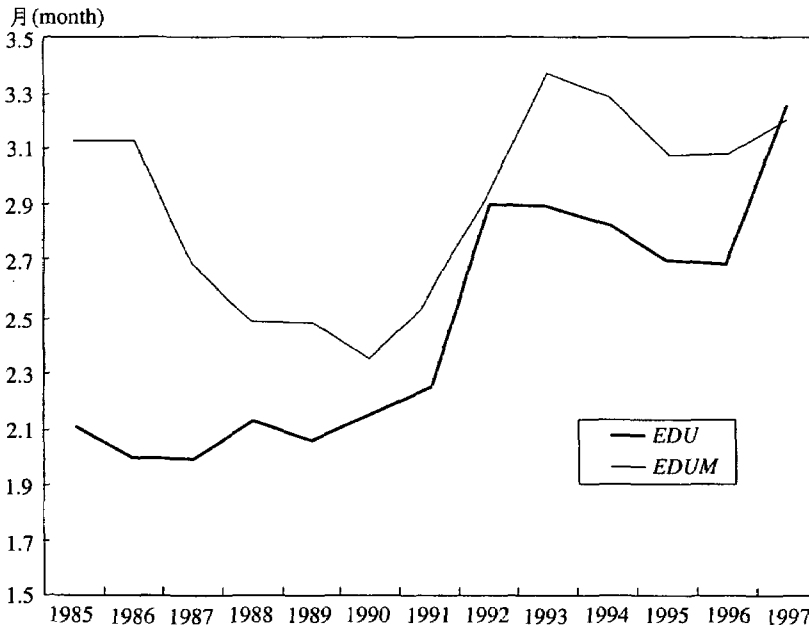
이제 구직기간에 대해 살펴보자. 구직기간은 EDU로 측정한 실업기간뿐 아니라 EDUM보다도 길게 나타난다. 흔히 구직기간은 실업기간을 완전하게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 실제의 실업기간보다 짧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미완결기간의 존재는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주로 구직기간을 실제의 실업기간보다 더 길어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요인을 들어보면 첫째,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업기간은 실업된 시점부터 그 기간을 측정하는 반면 구직기간은 구직활동을 개시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구직활동은 취업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⁹⁾ 구직활동 개시 시점은 실업시작 시점과 최소한 같거나 앞선다. 이는 구직기간을 실업기간보다 길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둘째, 느끼는 과거가 실제의 과거보다 더 멀게 느껴지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구직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업기간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형태의 실업기간에서

(9)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비경제활동상태가 아니라 이미 실업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직활동이 실업이 아닌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취업상태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실업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다. *EDU*로 측정된 실업기간에서 여성의 실업기간은 평균 2.20개월로서 남성의 2.51개월보다 0.31개월 짧으며, *EDUM*으로 측정된 실업기간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3.22개월보다 0.63개월 짧은 2.59개월이다. 구직기간을 보더라도 여성은 3.09개월로서 남성의 3.73개월보다 0.64개월 짧다. 이처럼 여성의 실업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재량·류근관(1999)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남성에 비해 실망실업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실업기간이 남성보다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실업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쉽게 실망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상태로 벗어나는 실망실업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기간의 두 측정치인 *EDU*와 *EDUM*이 시간에 걸쳐 어떤 모습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은 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굵은 선은 *EDU*를 나타낸 것이고 가는 선은 *EDUM*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DU*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반면⁽¹⁰⁾ *EDUM*은 뚜렷한 추세 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1990년대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



資料: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우리나라의 失業期間

화되고 있어서 核心失業(core unemployment)이 실업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rkov 안정성 가정에 입각한 실업기간인 EDUM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¹⁰⁾ 이는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EDU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본고에서 제시한 모형과 자료에 입각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하는 것이 실업기간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알려준다.

3. 既存의 패널資料를 擴張한 새로운 패널資料의 構築

위에서 측정한 실업기간은 개별 경제주체 또는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패널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러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경제활동패널은 본고의 실업기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불가능하였던 많은 추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 자료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경제활동패널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널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3.1. 새로운 패널資料의 構築 可能性

먼저 경제활동패널에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확장된 패널을 기존의 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사는 도시가계조사이다.

1963년에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실시되어 오던 도시가계조사는 역시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조사원 및 표본을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행정과 조사관리 및 비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통계청은 1969년에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1969년의 다목적 표본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의 조사구는 일치하지만 조사구역이 달라 두 조사의 표본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2년에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선정한 표본가구의 일부를 다시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10) EDU가 1992년과 1997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표본개편 압박에 따른 Markov 안정성 가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11)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업기간의 장기화 추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난다. 다만 이 추세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하다.

소득 및 지출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¹²⁾ 이는 적어도 1972년부터 도시가계조사를 위해 선정된 표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결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가계조사는 조사를 위해 선정된 표본가구가 매일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을 빈번하게 교체하기 어렵다. 빈번한 표본 교체는 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높일 것이고 조사를 번거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도시가계조사 조사를 위해 선정된 표본을 오랫동안 표본으로 유지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도시가계조사에서 수집된 原資料(raw data)를 패널로 구축할 수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1963년 1월부터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으로 통계조사기관이 이관된 후 표본 교체 회수가 7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1차 표본개편은 1969년에 있었으며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1972년, 1977년, 1982년, 1988년, 1993년, 그리고 1998년에 표본을 개편하였다.⁽¹³⁾

결국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결합될 수 있고 두 조사가 모두 표본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합된 두 조사자료를 패널로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두 조사의 원자료는 1981년 이후부터만 보관되어 오고 있으며 1963년부터 1980년까지의 원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패널자료의 구축 가능성 역시 1981년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된다.

3.2. 所得 및 支出 資料와 經濟活動 資料의 結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2년부터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이 일치하므로 두 조사자료를 결합할 수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 부여하는 가구 ID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통계청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ID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구 ID를 사용하면 두 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중 동일 가구를 식별해 낼 수 있다. 식별된 동일 가구끼리 결합하면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가 결합된다. 이렇게 결합할 때의 결합 성공률과 누락 가구수가 연도별로 <表 2>에 요약되어 있다.⁽¹⁴⁾

표에서 보듯이 두 조사에서 표본 가구의 결합률⁽¹⁵⁾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12)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30년』을 참조하라.

(13)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2000년 5월, p. 3.

(14) <表 2>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결과는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두 조사 자료의 결합에 문제가 있어 분석에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구 ID를 사용하여 두 조사자료를 결합하였을 때, 1982-1988년의 기간에서는 결합률이 시점별로 크게 다르고 또 결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의 연구들이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表 2〉 都市家計調査와 經濟活動人口調査의 原資料 結合 程度

(단위: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평균
결합률	98.5	95.0	99.5	99.6	99.4	97.4	97.0	99.4	99.4	98.3	85.4	97.2
누락 가구수	54.3	185.9	17.0	15.8	22.0	106.8	127.6	27.3	26.0	67.6	619.8	115.4

註: 단, 1993년의 결합률은 2월과 3월의 결합률을 제외하고 평균한 것이다. 1993년은 표본개편이 있었던 시기인데, 개편된 표본에 대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1993년 1월이 아니라 도시가계조사는 4월부터,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월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3년 2월과 3월 두 달 동안 도시가계조사는 개편되기 이전의 구표본에 대해,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편된 신표본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므로 두 조사자료가 결합될 수 없다.

資料: 도시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97.2%로 매우 높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도시가계조사에서 조사된 100가구 가운데 평균 97.2가구에 대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합한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기에 앞서 〈表 2〉의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표에서 1992년의 결합률은 무려 99.6%로 높으며 도시가계조사에서 조사된 표본 가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결합되지 못하는 누락 가구수는 평균 15.8가구에 불과하다. 다른 연도에서도 대체로 자료의 결합률이 높고 누락된 가구의 수가 적다. 다만 1999년에 두 조사 자료의 결합률이 85.4%로 낮으며 누락 가구수도 619.8가구로 비교적 많다.⁽¹⁵⁾

결국 본 연구는 1989년부터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결합될 수 있고 결합률도 매우 높아 두 조사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별도로 두 개의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도 있고, 또 두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하나의 결합된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도 있다. 특히 결합된 패널자료를 사용할 경우 우리는 이제까지 얻을 수 없었던 실로 엄청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가구의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구 또는 가구원의 소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지출패턴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등을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3.3. 새로운 마이크로 패널資料: 所得, 支出 및 經濟活動 패널資料

이제 결합된 두 조사자료를 패널로 구축하기로 하자.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와 결합한 결과를 서로 다른 시점끼리 연결하면 동일한 가구의 소득 및

(15) 결합률은 도시가계조사의 표본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16) 이는 아마도 경제위기의 여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3〉 所得, 支出 및 經濟活動 패널의 對應率

(단위: %)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평균
대응률	89.6	93.7	94.2	94.5	94.0	94.8	94.9	95.5	95.7	95.0	95.9	94.3

資料: 도시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지출에 대한 자료와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상이한 시점에서 동일 가구임을 식별하는 데에 사용되는 변수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가구 ID이다. 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조사자료의 결합은 현재까지는 1989년부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패널 구축 역시 1989년 이후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웃한 시점끼리 동일 가구를 대응시켜 구축한 패널자료의 대응률은 다음의 〈표 3〉에 연도별로 평균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제시한 대응률은 기본적으로 각 년도의 1월부터 다음 연도의 1월까지 월별 대응률을 평균한 것이다. 다만 1993년과 1997년, 그리고 1999년의 대응률 평균은 그렇지 않다. 1993년의 대응률은 1사분기 동안의 대응률을 제외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개편된 표본에 대한 실제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이다. 1997년과 1999년의 대응률은 각각 1997년 4사분기와 1998년 1사분기, 1999년 4사분기와 2000년 1사분기의 대응률을 제외하고 평균한 것이다. 이는 1997년의 경우 1998년 1월에 표본 개편이 있었기 때문이며 1999년의 경우는 본 연구가 1999년 4사분기까지의 자료만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소득, 지출 및 경제활동 패널의 대응률 평균은 94.3%로 높은 수준이다. 각 연도의 대응률을 보면 1999년의 대응률이 95.9%로 가장 높으며 1989년의 대응률이 89.6%로 가장 낮다. 1990년대 들어 대응률은 모두 93%를 넘고 있으며 1991년부터 대응률은 94%를 넘는다. 1995년부터 대응률은 95% 이상이다. 이러한 대응률은,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가계조사 자료만 사용하여 구축한 패널의 대응률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도시가계조사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100%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원자료가 동일한 가구 ID 하에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실시된 조사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그 경제주체가 소속된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 자료인 도시가계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결합된 패널자료로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패널자료는 표본의 이탈률도 적어 그 대표성의 유지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된 패널자료는 각종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結 論

본고는 기존에 구축된 경제활동패널을 장기패널로 확대 구축하여 이를 실업기간 측정에 활용하는 한편, 기존의 경제활동패널에 소득과 지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추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확장된 경제활동패널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전반부는 기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개인들을 최대 59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경제활동상태를 관찰하는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실업기간 측정에 활용하고 있다. 구축된 장기패널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Markov 안정성 가정을 최대한 완화한 채 실업기간을 측정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실업기간 측정을 위해 Markov 안정성 가정이라는 강한 가정을 하고 있으나 본고는 이러한 가정 없이 또는 이 가정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실업기간을 측정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실업탈출률은 Markov 안정성 가정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업기간과 무관하게 일정하지 않고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실업탈출률이 하락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측정한 실업기간이 실제의 실업기간을 왜곡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장기패널자료와 모형에 입각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기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강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핵심실업이 실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이웃한 두 시점끼리 병합하는 형태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Markov 안정성 가정 하에 구한 실업기간은 본고에서 새로 구한 실업기간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1990년대 들어 관찰되는 실업기간의 상승추세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측정한 실업기간이 실제의 실업기간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본고에서 측정한 실업기간을 성별로 보면 여성의 실업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재량·류근관(199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높은 실망실업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은 쉽게 낙담하여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업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패널을 장기패널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후반부에서 기존의 패널자료에 새로운 변수를 포함시키는 확장된 형태의 새로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즉 기존의 경제활동패널의 일부가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결합될 수 있고 결합된 자료를 다시 패널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널자료는 패널조사에 따른 표본 이탈도 크지 않아 많은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새로운 패널자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패널자료는 조사항목이 경제활동, 소득, 지출 등으로 광범위하며 또 매우 자세하여 다양한 분석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패널자료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구축한 것이므로 패널조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치르지 않고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이 자료는 정부에서 조사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이므로 공식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통계청에서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계속 실시되는 한 본고가 구축한 패널자료는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맥을 이어갈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실업기간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던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얻은 결과들은 이러한 장기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에서 구축한 형태의 장기패널자료를 사용할 경우 우리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에 관한 이해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추가한 패널자료는 경제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본고에서 구축한 새로운 패널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를 사용한 이후의 연구들이 기대된다.

漢陽大學校 經濟學部 講師

157-23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17번지 동성아파트 106동 609호

전화: (02)663-3241

팩시: (02)663-3241

E-mail: jmam@unitel.co.kr

(17) 자료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출간될 남재량(2000), 『새로운 패널자료: 매뉴얼』을 참조하라.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副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97
팩시: (02)886-4231
E-mail: ryu02@promе.snu.ac.kr

參 考 文 獻

- 김대일·남재량·류근관(2000):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 이탈자의 특성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0년 2월.
- 남재량(1997): 『우리나라 失業率의 趨勢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0): 『새로운 패널자료: 매뉴얼』, 미출간 원고.
- 남재량·김태기(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출간예정.
- 남재량·류근관(1999): “우리나라 여성 노동력 상태의 동태적 특성 연구,” 『한국사회과학』, 21. 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남재량·이창용(1998): “韓國의 失業率 趨勢變化에 관한 研究,” 『경제학연구』, 46. 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_____ (1994): 『지난 30年間 雇傭事情의 變化 — 經濟活動人口調査 30年 —』, 1994. 12.
- _____ :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_____ (1994): 『도시가계조사 30년』, 1994. 12.